

## TBT 중앙사무국 동정

# 기술규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가

기술규제대응과  
02-509-7254



WTO/TBT 중앙사무국은 '09.7.7(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무역상 기술장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표제로 배은희 의원실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주최측과 지경위원장이신 정장선 위원을 포함 15명의 국회의원과 업계 학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규제대응과장의 주제발표와 삼성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무역협회, 테크로스 등 전문가 및 기업이 6인의 패넬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는 주최 측이 서두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선진국이나 첨단기술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과 품목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에 정부와 수출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과 도전이 시급"하여 "대처방안을 고민해"온 참가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발제를 한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무역기술장벽(TBT)의 정의, 효과, 주요 사례, 최근 기술규

제동향 및 정부의 대응현황을 설명하였다. TBT는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시험 인증절차 등의 채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제반 장애요소인데 각국이 자국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WTO 회원국의 권리이다. '09년 1/4분기에 발행된 TBT 통보문은 477건으로서 '08년 동기대비 51%이상 증가하고 있다. 통상 임의 국가간의 기술규제는 관세를 6%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간의 분업화가 확대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산업구조에서 TBT의 급증은 엄청난 무역규제 효과를 유발한다. 즉 제품생산을 위하여 부품이나 소재가 국경을 5~6번씩 넘나들어야 하는 세계적 분업체제 하에서 각국의 TBT는 40%이상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가 된다.

선진국에서의 TBT는 주로 EU의 RoHS, REACH와 같이 장기적 환경규제 계획에 의거하고 있고, 개도국 TBT의 많은 부분이 시험 및 인증기관을 기존의 외국시험기관에서 자국기관으로 대체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해온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통한 정보제공(회원수 8,200명), 업계 애로사항 조사, WTO/TBT위원회에서의 다자대응 및 사안별 해당국과의 양자회의 등의 여러 대응활동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공산품 강제검사 제도가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ASEAN 등 관련국 공무원교육, 경협이전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 중인 TBT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TBT컨설팅 사업을 설명하였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주)의 김창범 부장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변경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 즉, 제품제조 전체과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표준/규제 대응 전문가의 양성과, 국제 규격/규제 논의과정부터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의하였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소의 정철 팀장은 최근의 기술규제 동향으로 비관세장벽(TBT, SPS 등) 제거에 초점을 맞춘 FTA의 확산을 예상하고 이의 대응시사점으로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선제적 역할의 수행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안하였다.

무역협회(KITA) 정재화 실장은 기술규제 확산에 대한 우리의 과제로서, 첫째 관련부처의 종합적 대응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을, 둘째 국회에서의 무역기업 애로에 대한 관심과 의원의교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셋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고, REACH 기업지원센터의 이귀호 센터장은 기술규제 대응 정책과 관련 규제정보의 기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 확대와 우리의 우수한 기술의 국제표준에의 반영 강화를 요청하였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참석한 (주)테스크로의 이강평 대표와 대우발전파워(주)의 권영철 대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우리기술의 반영 및 외국의 다양한 시험항목들을 TBT 중앙사무국과 관련 국내의 기관이 협력하여 검사일원화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기술표준 2009. 8